

홈 > GAM > 일반

미 연준, SLR 완화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

기사입력 : 2021년03월19일 23:36

최종수정 : 2021년03월19일 23:36

가 +

가 -

프린트

좋아요 0개



[뉴욕=뉴스핌] 김민정 특파원 = 미 연방준비제도(Fed)는 19일(현지시간)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(SLR)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.

SLR은 은행들이 국채 등 자산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4월 연준은 이 조치에서 국채를 제외했다.

SLR 완화로 연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(pandemic-세계적 대유행) 속에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줬다. 재정난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신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. 팬데믹에 따른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.



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(Fed) 의장.[사진=로이터 뉴스핌] 2021.03.18
mj72284@newspim.com

이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은행들은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.

성명에서 연준은 "이사회는 SLR의 변화가 은행 자본 요건을 악화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월가에서는 연준이 SLR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해 최근 급등한 국채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.

SLR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연준은 향후 SLR 규정을 어떻게 조정하면 바람직할지와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.

오늘의 인기기사

[뉴욕증시] 부양책 이행 속 다우·S&P500
신고가...FOMC 주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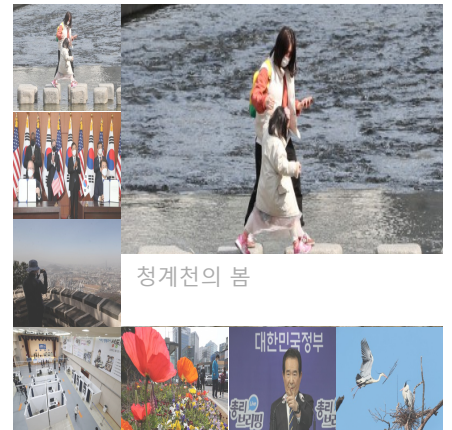
[여론조사] LH 투기 여파...문대통령 지지
율, 서울서 32.6% 급락

[뉴욕증시] 국채 금리 급등에 기술주 약
세...하락 마감

'미국은 예의 없는 나라' 중국, 미중 고위급
회담 결례 미국 맹비난

포토갤러리

더보기



청계천의 봄

안다 TV 투자직GAM



[투자직감]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한국
에는 이마트가 있다

성명은 "최근 중앙은행 보유분 공급과 국채 발행 공급 증가로 연준은 현재 SLR의 설계와 측정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"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검토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.

이어 연준은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.

mj72284@newspim.com

[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](#)

[뉴스핌 베스트 기사]

테슬라는 애플, 폭스바겐은 삼성 닮는다...이유는?
"뚝뚝한 1채, 안 팔아요"...보유세 폭탄에도 '강남 불패'
"지금이라도 담아라?"...자율주행 최대 수혜주는
쿠팡 상장으로 대박 난 직원 누군가 봤더니...
[단독] "안철수 정말 무식한 소리"...김종인 화난 이유

가 +

가 -

프린트

좋아요 0개

f

tw

fb

B

<저작권자(c)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(Newspim)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

뒤로가기

맨위로